

두려움과 절망의 우울한 변주곡

선율에 흐르는 죽음의 표정



‘죽음’은 시공을 초월해 끊임없이 ‘사랑’ 받아온 예술의 영원한 테마다. 음악가들 가운데도 죽음을 오선지 위로 불러낸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미술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다. 죽음에 대한 2차적 해석인 셈이다. 그들은 공간예술인 그림이나 조각을 시간예술로 둔갑시키고, 시각언어를 음성언어로 변형시켜 죽음조차 감미로운 선율로 속삭이듯 노래한다.

미술작품 보고 영감 얻어 작곡한 작품 말아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D단조>
는 ‘죽음과 소녀’ (Death and the

Maiden)라는 부제 때문에 더욱 유명

하다. 이 작품에 부제가 달린 이유는 제2악장이 슈베르트 자신이 쓴 <죽음과 소녀>라는 가곡의 반주부분을 도입해 그 우울한 멜로디를 바탕으로 한 변주곡이기 때문이다. 그의 가곡 <죽음과 소녀>는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인데, 죽음에 이른 소녀와 집요하게 죽음을 요구하는 사자와의 대화가 주조음을 이룬다. 무엇보다 동시대 작곡가인 베토벤과 달리 죽음조차 힘찬 ‘춤곡’으로 소화해낸 슈베르트의 낭만적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죽음을 노래한 슈베르트의 작품으로 괴테의 시 <마왕>에 곡을 붙인 같은 제목의 가곡 <마왕(Der Erlkonig op.1)>도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시 <죽음의 섬(The Isle of the Dead, op.29)>은 아놀드 비클린의 그림 <죽음의 섬>을 보고 영감을 얻어 작곡했다. 이 작품은 느리고도 서글픈 하프 연주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섬으로 실어 나르는 노의 움직임을, 첼로 연주가 죽음의 섬에 부딪치는 물결을 나타낸다. 하프와 첼로 사이에 고뇌가 깃든 듯한 바이올린을 배경으로 한 첼로연주가 압권이다. 이 작품은 라흐마니노프의 내성적이며 불안한 인간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주로 서정성 짙은 음악세계를 표현해온 그리그는 입센의 희곡 <페르귄트>를 바탕으로 쓴 극음악 <페르귄트 모음곡>을 남겼다. 노르웨이의 민속설화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두개의 조곡으로 구성됐다. <오제의 죽음>은 제1모음곡의 2번곡인데, 페르귄트를 기다리다 병상에서 죽어가는 오제의 모습을 그렸다. 이 곡은 어둡고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흐느끼는 듯한 선율로 고독했던 늙은 어머니의 죽음을 표현했다.

죽음을 노래한 음악이 ‘자살 교향곡’이 되기도 해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6
번 b단조 op.74>는 ‘비창’으
로 유명하다. 1893년, 그가 죽

던 해에 작곡한 이 작품은 생의 비극적인 갈등과, 죽음으로 종말을 고하는 생명 전체를 음악화했다. 차이코프스키 자신이 “나의 생애 중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한 곡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초연된 후 8일만에 차이코프스키가 돌연 세상을 떠나 이 곡엔 ‘자살 교향곡’이라는 수식도 따라붙는다. 이 밖에 죽음을 노래한 곡으로 보통 ‘진혼곡’ ‘죽은 자의 혼을 달래는 노래’로 풀이되는 <레퀴엠>이 있다. <레퀴엠>은 모차르트를 비롯해 브람스, 베르디, 베를리오즈 등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죽음에 대한 음악가들의 깊은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음악적 표현은 고전음악가뿐 아니라 현대의 음악가들에게도 나타난다. 1936년 4월 30일, 세계적인 레이 벤츨라 오케스트라 콘서트홀, <글루미 썬데이(Gloomy Sunday)>를 연주하던 단원들은 드럼 연주자의 권총 자살을 시작으로, 결국 연주가 끝난 후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 ‘20세기의 로렐라이’로 불리는 이 우울한 노래는 비운의 천재 작곡가 레조 세레스가 작곡했다. 연인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이 곡은 레코드 발매 당시 8주만에 헝가리에서만 187명을 자살하게 만든 ‘죽음의 노래’가 됐고, 작곡가 자신도 결국 이 노래를 들으며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대중가요 가운데 죽음을 노래한 곡은 마약의 유혹에 빠져 비틀거리는 젊음을 노래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죽음의 눈>과 환경오염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세상을 노래한 이현도의 <비틀린 세상> 등이 있다. 지난 7월에 발매된 신인가수 튜업의 앨범도 있다. 이 앨범은 너무 쉽게 자살충동에 휩쓸려 목숨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세대를 풍자한 <카미가제특공대>를 비롯해 변화된 시대의 죽음을 힙합리듬의 다양한 변주 속에 담고 있다. —박옥순 기자